

#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단상



김승호의  
시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결국 지났다. 매년 반복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행태다. 위원회는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 위원회 소속 사용자위원(경영계)과 근로자위원(노동계)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이 뻔하다. 그러다 공익위원들의 '공익' (?)적인 중재로 내년 최저임금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늘 그런 식이다. '공익'이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중립'과 '중재'가 내포돼 있는 지도 모르겠다. 최저임금위원회만 놓고 보면 매년 드는 생각이다. 각설하고, 올해 결정해야 하는 내년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차등(구분)적용'과 '사상 첫 1만원 돌파' 여부다.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음식점업, 택시 운

송업, 편의점업 등에 대해 차등해서 좀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강조한다. 경영계에 속하는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주인)은 72만원 벌다"면서 일부 업종에선 사장들의 지불능력이 낮고,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p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불능력 취약업종에 대해선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차등'을 '차별'이라고 보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호주,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적지 않은 나라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하향식'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과학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통계,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의도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는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기준 최저임금보다 높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낮게 차등을 두자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가 더 낮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빈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만원' 돌파 여부를 놓고도 끝까지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수준에서 140원(1.4%)을 올리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88년부터 적용한 최저임금은 2021년 인상률이 1.5%(130원)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임금생활자들도 고금리, 고물가에 지갑이 얇아져 허덕이긴 마찬가지다. 고심끝에 그 적정선을 찾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bad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일 (음 5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48년생 믿고 의지하던 친구와 의견대립이 생긴다. 60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72년생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면 보답이. 84년생 좋은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 한심.
- 소** 37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도 한 방법이다. 49년생 절이 싫으면 불평 말고 종이 떠 나면 그만이다. 61년생 외출할 때 이문자를 조심. 73년생 언쟁에 휘말리게 되니 본전 찾기 힘들다. 85년생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단조로운 하루이다.
- 호랑이** 38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50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는다. 62년생 상대는 호기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 74년생 목표를 향해 전진하도록. 86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잘 살펴라.
- 토끼** 39년생 비운 뒤에 땅이 더 굳는다. 51년생 생각을 바꾸면 외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63년생 우물에서 송송 찾지 말고 매사에 순서대로. 75년생 견문을 넓히도록 책을 열심히 보라. 87년생 망각의 강을 건너듯 기억력이 떨어진다.
- 염** 40년생 좋은 일이라도 금방 달려들지 마라. 52년생 피곤한 날이니 돈거래는 신중하게. 64년생 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76년생 인제나 준비해야 내일이 희망이다. 88년생 복잡한 흥분물은 잠시 두면 맑아진다.
- 뱀** 41년생 미인은 명이 짧거나 운명이 불행하다. 53년생 사람이 꼭 명명한 것만은 아니다. 65년생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해 보는 것도. 77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신용으로. 89년생 형질지공의 의미를 찾아보라.
- 말** 42년생 좋은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본다. 54년생 계산보다는 올바른 자신이 구실수를 예방한다. 66년생 하나를 뿌려서 세 개를 수확하는 날. 78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설렁처럼 좋은 것은 당분간 보류. 90년생 재주는 다 쓸모가 있기 마련.
- 양** 43년생 자식이 예뻐도 무질서는 고쳐야 하는데. 55년생 어려서도 본분없는 사람 같아도 그렇지 않다. 67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79년생 알 수 없는 투자는 낭패를 불러온다. 91년생 허물을 고치는 것으로도 운명은 개선된다.
- 원숭이** 44년생 불리하면 도망치라 했으니 삼심육계 아니겠는가. 56년생 자식이 양상군자이다. 68년생 길 떠나려는데 산발 끈이 풀리니 잠시 쉬었다 가자. 80년생 조금만 더 하면 목표에 도달. 92년생 제2의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 닭** 45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춰보라. 57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69년생 내가 놓은 뒷에 스스로 걸린다. 81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93년생 시샘하는 사람이 많으니 가쪽 자랑은 금물인데.
- 개** 46년생 해주고도 욕먹는다는 말이 실감 난다. 58년생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활기차게 감사하다. 70년생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간다 했으니 도전하라. 82년생 반포지효는 하늘도 공감하여 돕는다. 94년생 문 앞이 장터를 이룬 듯 복적이게 된다.
- 돼지** 47년생 시간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59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71년생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지가 궁궁. 83년생 오십보백보를 따져본들. 95년생 월하노인 즉 남녘을 이어주는 운명의 붉은 실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 재난·재해와 보험



김주형의  
수첩

사용하던 폴더블 폰의 한쪽 화면이 고장났다. 몇달을 불편에 적응하다 날 잡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신나게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설명했다. 수리기사 몇 분 후 예상 수리견적서로 답했다. 60만원의 비용이 적혀 있었다. "휴대폰보험 가입하셨죠?" 기사는 보험 가입이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불행히도 구매 당시 폰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망가진 휴대폰은 아직도 현역이다. 소를 잃을 것만 같았던 생각뿐 아니라 외양간을 고칠 비용은 생각조차 안했다. 보험은 잃어버린 소를 되찾아주진 못하지만 외양간을 고쳐줄 순 있다. 다만 저조

한 보험가입률을 억지로 끌어 올린 순 없다. 주요 보험인 암·심혈관 등 건강보험은 가입에 익숙하지만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수 손해보험사가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기준 화재보험 계약 1457만건 중 지진특약 건수 48만건으로 3.3%에 불과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주택 33%, 온실 18%, 소상공인 상가·공장 23%에 그쳤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발생해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화재보험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화재 공제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공제보험 가입률은 지난 5월 기준 31.8%에 그친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을 마련했다. 연간 보험료는 20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점포별 30~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가입률은 크게 떨어진다.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재난·재해에 대비해 보험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률 제고에 나서고 있으나 수요가 적고 손해율이 큰 보험은 언제나 후순위로 고려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치지 못한 것은 작은 휴대전화였지만 국가적인 재난·재해로 잃어버린 재산은 작지 않다. 재난·재해에 취약한 외양간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소비자도, 보험사도 제쳐두고 있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역할이 한번쯤은 단독 무대에서 주목받아야 한다. /gh471@

## 김상회의四季

### 시대를 읽는 눈

2024년도 음력으로 5월이요, 양력으로도 곧 일년의 반이 지나간다. 세월의 빠름은 이미 강조하기도 지칠 판이다. 갑진년은 혼란스럽고 내홍이 적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체질과 탄력성이 단단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내홍이 적지 않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말이다. 요즘은 송하비결을 회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한 것으로 보여져 한때 많은 이들이 송하비결의 여러 대목을 화제로 삼곤 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전래의 비결서에 한결같이 보이는 대목들은 극도의 혼란을 겪고 난 뒤 비로소 성인이 나타나 대한민국이 군자의 나라로서 동방인목의 기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암시하는 대목들이 자주 보인다. 송하비결이나 정감록이 그 대표적 예이다. 탄허스님 예언이 인상에 남는데 아마도 스님은 필자가 뜻밖의 어린 시절에 그분의 저서를 직접 읽어보고 감명한 탓도 있을 것이다. 비결서와 관련한 예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요점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세계의 주류에 편입되고 있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K-POP과 음식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무서운 기세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70년대 초기에 탄허스님이 예견한 그대로이다.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이 바로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겪어내는 탓이다. 결국은 헤쳐나갈 것이다. 역학을 아는 이들은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기호를 읽어낸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준비할 수 있다.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가 몹시 어렵다고 하는데 당분간 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혼란한 사회를 이겨나가 분명 우리나라는 후천갑자의 동방인목의 기치로 도약하고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스토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4	3	9					
2		6	8					7
							3	
			8	4				3
	2				4			
3			2	9				
	9							
4				1	5			8
		7	4		3			2

1		8				6	3	
9					1		7	5
	4		7					
	3		8					
			6	3				
				1			3	
				5		6		
7	8		3					4
6	2			8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6	8	8	7	2	9	9	1
8	2	9	1	9	6	8	2	7
7	9	1	8	2	9	2	6	8
9	9	8	2	6	2	1	7	8
6	1	7	9	9	8	2	8	2
8	2	2	7	8	1	6	9	9
9	8	9	2	1	7	8	1	6
2	7	6	9	1	8	9	8	2
1	8	2	6	8	9	7	2	9

1	6	8	8	7	2	9	2	9
7	2	9	6	9	8	1	8	2
2	8	9	2	9	1	8	6	7
2	8	6	2	1	9	9	7	8
8	7	2	8	2	9	6	1	9
9	9	1	7	8	6	2	8	2
6	1	8	9	2	7	9	9	8
9	2	1	8	7	8	9	8	8
8	9	7	9	6	8	2	1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6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